성곽마을 소식을 한자리에

성곽마을 소식지

2021
6
JUNE
vol.19

2021 성곽사협 상반기 비전워크숍 진행



2021년 상반기 비전워크숍은 6월 10일 목요일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성곽사협)의 이해와 성곽사협의 체질개선 준비하기를 주 안건으로 성북플랫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곽마을은 2014년 6월 3일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의 시작 이후 매년 성곽마을의 활동 지향목표와 비전 제시를 주민이 직접 논의하여 함께 할 의제를 발굴하는 비전워크숍을 상·하반기 2회 진행해 왔습니다. 첫 비전워크숍으로 2017년 6월 10일 제1회 주민한마당에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의 비전을 담은 '성곽마을 주민선언'으로 성곽마을 재생과 가치공유, 공동체 활성화를 바탕으로 성곽마을 재생 주체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제별 실천계획 및 조직과 사업의 구상을 수립하고, 주민이 재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인격으로 성곽사협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번 비전워크숍은 성곽사협의 책임 있는 운영과 조합원의 참여 확대, 마을과 주민네트워크, 그리고 성곽사협의 관계 설정을 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곽마을 재생으로 발굴되고 조성된 재생자원을 성곽마을 박물관(장수 성곽마을), 여행자카페(삼선3구역)의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해 '성곽마을 살이' 서비스를 시작. 성북권에서 삼선권, 이화 충신권역을 엮는 한양도성 낙산구간의 완성도 있는 루트 개발에 임하였음을 공유하며,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소셜 미션 활동에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성곽사협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자리였습니다.

한설/기자

수원 행궁동 마을해설사 벤치마킹 방문



6월 11일 금요일 우리와 같은 성곽마을인 수원 화성 행궁동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행궁동은 수원화성에 둘러싸인 하나의 행정동으로 작은 성곽마을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참여자는 행궁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행궁동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마을해설을 준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성곽마을 여행자카페 공간을 둘러보고, 여행자들에게 어떤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고, 낙산 성곽길과 장수 성곽마을 딱지길을 따라 김종대 코디네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도성과 마을을 이해하는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탐방을 마치고는 성곽마을 박물관에 도착해 뮤지엄숍과 전시를 관람하고, 정지혜 조합원이 성곽마을재생과 마을여행에 관련한 미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행궁동 역시 도시재생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앵커시설이 만들어졌고, 이를 활용한 탐방사업을 고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공간활용, 지역사회 협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주고받아 성곽사협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곽마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진지함에 성곽사협도 감사했고, 한설 코디네이터가 진행하는 실크스크린 체험으로 성곽마을 로고를 찍은 에코백을 들고 가는 행궁동 마을해설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 행복한 탐방이었습니다.

정지혜/기자

종로구 마을자치센터 '성곽마을살이' 체험

파란하늘에 햇살이 쨍하게 맑은 6월25일 금요일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의 성곽마을살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혜화문에서 만나 김종대 코디네이터의 해설로 출발하여 한양도성 낙산길을 걸으며 369 성곽마을 '마실'의 그림엽서와 같은 풍경과 낙산 성곽의 아름다운 곡선, 각자성석의 역사적 의미까지 더하는 역사·문화 공유의 장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는 매월 1회 진행하는 정기회의를 마을 탐방 및 주민만남을 주제해서 여러 마을을 접하고 있습니다. 혜화동의 혜화문에서 이화동으로 연결되는 낙산자락길을 걸으며 마을의 연계를 이야기하고, 성곽마을 박물관과 성곽마을 여행자카페를 방문해 주민 공유공간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초로 직접 마을현장을 답사하는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의 멋진 행보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더불어 성곽사협의 '성곽마을살이' 체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한설/기자



문 의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citywall_village@naver.com

서울시 소통회의 개최



6월 3일과 17일에 두 차례의 서울시 소통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총괄 코디네이터, 성곽마을 코디네이터, 성곽마을 지원팀인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습니다. 3일은 '성곽마을 앵커시설 통합운영 지원용역'의 마무리 및 향후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17일 회의에는 김다영 신입 코디네이터가 합류하였으며, 향후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전 및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다영/기자

성곽마을 기록단 양성교육 심화과정 진행



6월 14일 월요일 성북플랫폼에서 '성곽마을 마을기록단'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 진행된 4회차 기초교육에 이어 이번달부터는 본격적인 글쓰기 심화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실전 인터뷰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준비과정, 기획하기, 준비물 등 인터뷰에 관한 이론과 함께, 마을기록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을주민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실제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까이가와 아쯔코/기자

혜화·명륜권 소식

혜화·명륜 성곽마을 대표 이주희

이루재 마을 도시락 나눔



이루재에서 세번째 도시락 나눔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집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이라도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직장인 분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직장인 봉사자 분들을 위해 7월은 11일 일요일에도 마을도시락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도시락이 혜화동의 며 명물이 되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부러워 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심정은/기자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전래동화놀이공연



6월 3일 오후 1시 이루재에 작은 공연 준비팀이 방문했습니다. 변사, 흥부, 놀부, 보조를 맡은 네 분이 꾸미는 공연이었는데요.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이 구경하실 수 있도록 오랜만에 이루재도 1층의 폴딩도어를 활짝 열었고, 흥겨운 공연과 춤사위에 관객도 박수로 함께 했습니다. 12월까지 찾아가는 전래동화놀이공연'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및 야외공간을 방문해 봉사 한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주희/기자

혜화·명륜 성곽마을 탐방해설사 양성교육 진행





마을여행협동조합 돌레길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으로 혜화·명륜 성곽마을 탐방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교육의 대상이었던 주민과 학생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로구 주민과 성균관대 학생을 대상으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25명의 신청자가 지원해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성교육의 내용은 한양도성 성곽마을 재생과 마을여행, 마을해설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강의와 다른 탐방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는 벤치마킹, 그리고 지역자원을 조사해 새로운 코스와 탐방 프로그램, 해설 시나리오 등을 작성하는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시작되어 10회차의 교육으로 진해되는 양성교육을 마치면, 가을에는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실습에 들어가는데, 많은 해설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지혜/기자

광희·장충권 소식

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이승옥

모이소, 지하전시장에 액자레일 설치



6월 1일 화요일 광희장충 성곽마을 모이소에서는 지하 유리홀과 안쪽 큰 홀에 액자레일 설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모이소 작가들과 성곽마을 주민들의 작품을 멋있게 전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갤러리 거점으로 많은 지역분들의 문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나까이가와 아쯔코/기자

모이소, 기후대책 캠페인 동참



광희장충 성곽마을 모여라 모이소는 요즘 기후대책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새로운 환경창조를 위해 실시한 정리정돈 청소에서도 박스 정리할 때 테이프를 분리해서 버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분리수거도 톡톡히 했습니다.

나까이가와 아쯔코/기자

엔젤피그 솜씨자랑, 양초에 글씨와 그림넣기



6월 21일 월요일 광희장충 성곽마을 모이소에서는 엔젤피그 솜씨자랑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초에 글씨와 그림 넣기를 하였는데, 하얀 양초기둥에 캘리그라피와 꽃 프린트로 아름다운 생기를 넣어 주었답니다. 모이소 회원들의 손끝에서 화려하게 변신한 양초가 너울너울 춤을 출 것만 같아요.

이승옥/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다산권 소식

다산 성곽마을 대표 이계용

담소정 희망지사업으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진행



다산 성곽마을 담소정에서 희망지사업으로 마을해설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양도성 해설사와 함께 발성, 발음, 해설 진행시간, 해설사로서의 체력 관리, 자기만의 감성을 가지고 해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아주 유쾌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주/기자

중구청 협치 관련 주민간담회 진행



6월 16일 다산성곽도서관에서 배지용 중구청 협치조정관님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다산동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공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불편했던 점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주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주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현주/기자

평화정, 성곽길 캘리그라피 교실 운영



주민공동이용시설 평화정에서 성곽길 캘리그라피 교실이 열렸습니다. 6월 12일부터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캘리그라피 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캘리그라피 전문강사인 문자영 선생님과 함께 아름다운 글귀와 개성 넘치는 글씨체를 연습해 봅니다.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수업이 진행될수록 실력도 늘어나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 과정은 붓펜을 이용하여 필압으로 쓰는 글씨를 배웁니다. 참여하는 다산 성곽마을 주민들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는 재미가 솔솔 하였습니다.

이현주/기자

행촌권 소식

행촌권 성곽마을 대표 김동수, 박명화

행촌의 초록나눔



더위의 시작과 함께 쌈채소가 풍성해 지는 6월. 종로구 관내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나눔 푸드뱅크마켓에 행촌의 도시농업공동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숭인동 푸드뱅크마켓 1호점(동부, 숭인동주민센터 4층)과 가회동 푸드뱅크마켓 2호점(서부, 종로웰리스센터 1층)에 봄에 파종하여 소담스럽게 잘 자란 상추와 고추를 기부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행촌 주민들의 손길을 관내 주민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유완식/행촌권 성곽마을 총무

이화·충신권 소식

충신권 성곽마을 대표 김영수

저녁에 꽃피는 캘리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종로5.6가동 주민센터에서 〈저녁에 꽃피는 캘리〉수업이 진행됩니다. 대면교육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비대면 영상수업으로 운영되기에 코로나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습니다. 퇴근길 감성 글씨에 흠뻑 취하는 목요일 저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JN5cYP8ro

김현주/기자

성북권 소식

북정 성곽마을 대표 김경동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 북정마을 탐방 진행



6월 26일(토)에 한양여대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북정마을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북정마을의 김경동 대표께서 성북동의 역사, 북정마을 이야기에 대한 다채로운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몽골, 중국, 캐나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우장의 아궁이를 보고 '대장금!'을 외친 참가자가 있어 모두 활짝 웃었습니다. 우물 쉼터에서 즐겁게 옛날식 펌프 체험을 한 후,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양도성이 마을과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인생샷'을 찍고 흡족한 마음으로 성곽마을 앵커시설인 '성북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김경동 대표께서 직접 재배한 상추와 치커리를 깜짝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곽마을에서 느낀 한국의 '정(情)'에 모두 행복해한 탐방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our Seoul City Wall Village!"

김다영/기자

삼선권 소식

369 성곽마을 대표 김희준

낙산성곽 꽃길만 걸어요



삼선권을 들어서면 카페 '마실'의 향기가 그윽하게 맞이하고, 돌아돌아 걷는 성곽길에선 369 성곽마을의 향기가 납니다. 봄이 움트는 4월부터 중부녹지사업소와 369마을 운영위원회가 함께 꽃길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꽃길은 특별히 4계절 꽃을 볼 수 있게 계획되어 있는데, 6월이 되니 말채와 수국, 원추리와 범부채, 장미와 패랭이 등 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이번 조성사업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낮아 위험한 부분을 잔디와 키 작은 나무로 안전하게 구분하게 되었고, 특히 아름다운 한양도성의 낙산구간의 산책로가 한층 더 여유로운 계절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꽃들이 심어져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예쁜 표지판도 설치되어 탐방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369성곽마을과 함께하는 낙산성곽 '꽃길 걷기'에 많은 시민들의 탐방을 기대해 봅니다.

김희준/369 성곽마을 대표